

'88 韓·美 防産會議 성황리에 개최

- 美 LA Hilton & Tower 호텔에서 -



韓·美 방산회의 전체회의 모습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美國 防衛準備協會(ADPA)가 공동으로 주최한 '88 韓·美 방산회의가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Hilton & Tower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韓·美 양국의 政府人士 및 방산업체 대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협력을 통한 안보증진(Security through Cooperation)」이라는 주제하에 전체회의와 3개 분과회의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각 분과회의에서는 협력의 증가(연구개발 및 상호구매), 오프셋트(문제점과 기회), 기술이전(제3국 판매 및 지적소유권)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李昌九

국방 제2차관보는 基調演說에서, 양국간의 방산협력관계가 방산협력 MoU의 체결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제2일차 전체회의에서 美側의 한국 오프셋트제도 우려에 대한 우리측 입장의 설명과 함께 한국 방산업체 능력에 맞는 사업의 미국 업체와의 추진 희망을 披瀝하였다.

이에 대해 美 國방성 Everett Greinke 국제계획 및 기술담당 부차관은 양국간의 방산협력사업이 단기적인 이익의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제3국 판매에는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MoU 체결 기대와 함께 정부와 정부간의 접촉 확대와

업체 對 업체간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 한국측 공동의장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柳俊龔 상근부회장과 미국측 공동의장인 미국 방위준비협회 Howard M. Fish 국제사업담당회장은 다음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고, 次期 韓 · 美 防産會議을 1989년 4월경 한국의 慶州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美國의 보호무역주의는 상호 안보에 유익하지 못하다.

- 협력개발사업은 그 초기단계부터 제3국 판매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오프셋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이다.

- '87 韓 · 美 방산회의 이후로 知的的所有權 보호에 진전이 있었다.

- 방산협력 협정에 양국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회의기간중 우리측 6개 업체와 美側 17개 업체등 23개 업체의 防産展示會가 병행하여 열렸으며, 회의에 이어 우리측 회의 참가자들은 4개조로 나뉘어 캘리포니아주 및 텍사스주의 美 방산업체를 시찰하였다.

캐나다 방산업체 시찰

'88 韓 · 美 방산회의에 참가한 한국측 대표 일행중 18명은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간 캐나다 방산업체를 둘러보았다.

방문기간중 일행은 캐나다 外務省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W.B. Schumacher 외무성 국제무역담당 차관보등 관련인사등과 韓 · 캐나다 방산협력의 현안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柳俊龔 상근부회장은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캐나다 航空宇宙産業協會(AIAC)간에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분야, 관심사항 및 문제점에 관해



회의기간중 병행하여 열린 展示會
(Ford Aerospace社(上) 및 Honeywell社)

격년제로 상대국가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하여, 상설위원회 구성과 매년 회의 개최를 잠정 합의하였다.

이어 한국측 일행은 2개조로 나뉘어 캐나다 정부요원의 안내로 De Haviland社, Atlantis Aerospace社등 11개 캐나다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고, 현황청취와 함께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의 방산협력 증대는 물론, 향후 항공우주산업분야등 방산관련 첨단기술 획득에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